

“一日一新으로 보낸 3년… 지속가능한 건보확대 주력”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건의료계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마지막 자리는 온전히 찬사와 존경의 마음이 어우러진 자리로 빛났다.

의료계 큰 어른으로 신뢰를 받았던 그의 행보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전방 국가기관에서도 빛을 발했다.

이제는 후진 양성을 위해 새로운 자리에서 새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성상철 이사장은 11월 28일 광화문 한정식집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소회와 앞으로 걸어갈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된지도 어느덧 3년이 됐다"면서 "매일 아침 '하루에 한 가지씩 새롭게 바꾸어보자'라는 일일일신(一日一新)의 다짐으로 공단과 함께한 지난 3년은 참으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취임 초기에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등에 따른 재정적 안정 문제와 보험자의 역할 정립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었다"면서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각계 전문가 및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10년을 대비한 '뉴비전 및 미래전략'을 수립·발표했고 그 실행기반 확립과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이어 "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부과체계 개편' 시행으로 국민 불편은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국고지원 기간 연장'과 '건강증진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기반은 한층 다져졌으며, 공단은 그 성공적 시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성과를 밝혔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정부경영평가 2년 연속 A등

급 달성, 공공기관 최초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매우 우수 기관 선정, 전 유형 수가계약 체결,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 대상 수상, 성공적 본사 원주 이전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면서 "지난 8월 정부는 '보장성 확대'와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보건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하여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공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막중해졌다"고 덧붙였다.

성상철 이사장은 "새 정부의 건강보장 정책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로 상징되듯이 보장성 확대와 포용적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공단은 보험자로서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재원마련 및 지출 효율화로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기자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공단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건강보험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이어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듯 멀지 않게 보건의료계에서 후진을 양성해, 나름대로 역할을 할지 모르겠다"는 말로 본인의 향후 거취를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성상철 이사장의 마지막 기자간담회에는 출입기자 3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기자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술잔을 기울인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과 안녕의 인사를 전하며 아쉽지만 즐거운 송별회를 마무리했다.

문윤희 기자/MP저널